

# 2023년 3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음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김홍태	3/5	[뉴스리뷰]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경찰 '술렁' [토요와이드]'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의	
이동준	3/12	[출발600] 황영웅, '불타는 트롯맨' 하차..."진심으로 사과" [뉴스현장] 피해자 54% "극단선택 생각"...학교폭력 대책은?	
임윤주	3/19	[뉴스리뷰]"주 최대 69시간 일하고 충분한 휴식"...노동계 반발 [뉴스1번지]주 최대 69시간 근로 추진에 논란..."MZ도 반대"	
안지연	3/26	[뉴스10]일하는 노인 10년새 2배...2월 고용률도 최고 [뉴스프라임] 취업난에 그냥 씌 '청년백수' 50만명...역대 최대	

###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안지연 평가원 추가’

구 분	성 명	전 · 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이동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2023. 01. 31	-
활동	안지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2023 .01. 31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3 3/5(일)	김홍태	<p>지난 26일 오전 10시 일요와이드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한은은 인상이 끝난게 아니라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전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뒤 증권가에선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보고서가 잇달아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이제 관심은 금리의 정점이 어딘지, 나아가 언제 금리를 내릴지에 쏠려 있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이창용 총재의 언급은 의도적인 메시지일 뿐이란 겁니다. 금리인상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심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결국 불확실성에 따라 한은이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증권가에선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보고서가 잇달아 등장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증권가에는 타격이 계속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금리차이로 인해 국부유출이 발생한다면 더 큰 타격을 올 수 있다는 점과 미국의 고물가 상황이 금리인상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은 좋아 보였습니다.</p> <p>하지만 최근까지도 미국의 물가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는 현상과 이에 따른 S&amp;P 500 지수의 불안함 등은 아직 금리인상을 멈추기엔 시기상조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금들이 조금씩 이탈하고 있는 모습도 금리인상 종단을 뒷받침하기엔 쉽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금리인상 종단이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려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에 따라</p>	<p>리포트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넣어야 하는 방송리포트 특성상 축약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부유출 가능성과 미국의 고물가 상황을 언급한 것은 단순 팩트를 넘어 우리 금리 문제가 미국에 연동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 부분을 언급한 만큼, 우리 금리인상과 미국의 금리인상이 맞물려있음을 다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는 물가와 환율도 중요하지만 경기상황과 기업,서민의 금리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로 인해 금리 추가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전하려는 게 리포트의 취지였음을 말씀드립니다.</p>

		정책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마무리 멘트로 넣었으며 더 좋았을 것입니다.	
2023 3/12(일)	이동준	3월 5일 일요와이드에서는 초고도 비만의 남자가 생의 마지막에서 구원을 찾는 영화 '더 웨일' 개봉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거부한 채 온라인으로만 학생들을 만나는 주인공은 가족을 버린 죄책감에 폭식증을 얻었고, 거대한 육체의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다 생의 마지막에서 헤어진 딸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시간 넘는 특수분장을 받고도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브렌든 프레이저는 크리틱스 초이스 등 할리우드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 유력 후보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미이라 시리즈로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었던 브렌든 프레이저는 과도한 영화 촬영 스케줄로 인해 부상을 입고 이혼을 하는 등 개인적인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슬럼프에 빠져 우울증을 앓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회장이었던 필립 버크의 성희롱으로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용기 내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왕년에 잘나갔으나 실패한 스타'의 대표적인 인물로 조롱의 밭이 되었던 그가 크리틱스 초이스 남우주연상 수상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통받거나 어두운 바다에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당신도 두 발로 서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브렌든 프레이저의 소감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랜 공백기를 깨고 배우로 복귀한 프레이저의 이야기가 영화와 연결되면서 또 다른 극적 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영화의 소개에 만족하기보다 감상을 위한 배경지식이나 맥락 등을 같이 전달한다면 시	문화부에서는 대략 1~2주에 한차례씩 볼만한 신작 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이 아닌 다양한 영화를 시청자들에게 제시해준다는 개념으로 리포트 하나에 2~3편의 영화를 담아 소개하다보니 아무래도 영화의 뒷배경이 될 수 있는 깊이있는 설명까지는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 웨일'과 브렌든 프레이저의 경우 스토리가 있는 영화와 배우만큼 독립된 리포트를 만들어봐도 좋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적해주신바를 적극 반영하여 향후 주요 영화의 경우 별건의 리포트로 깊이있는 내용을 담아 소개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청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2023 3/19(일)	임윤주	정부가 근로시간 관련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은 어떤 내용인지, 또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6일 오후 9시 <뉴스 리뷰>입니다. 개편안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잘 전달했는데요. 특히 자료화면 등을 이용하여 기존안과 개편안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하여 준 점도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간의 제약으로 준비된 자료화면 대비 짧게 언급하고 지나간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부분이 아쉬웠는데요, 현재 주요 쟁점인 최장 근로 시간과 관련한 부분으로, 향후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더 구체적으로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동계의 반발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앞서 개편안 보도와는 달리, 노동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나, 혹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화면 등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향후 정부 발표 내용이나 노조의 입장 등을 정확하게 치우침 없이 전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 3/26(일)	안지연	20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청년들의 취업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세대 간의 견해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빚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언론에서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 종종 다뤄지면서 사회적 문제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연구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했을 뿐 이에 대한 해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성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과 청년 취업난 등 세대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보도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 통계를 벗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짚어 대안점을 제시해가는 보도를 더 늘려가겠습니다.

	<p>세대의 응답에 대한 해석만 언급하여 기성세대에서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파악할 수 있었으나 2030세대에 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대별 인식을 다른 조사에서 세대별로 어떠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지, 공통점은 무엇인지 등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각 세대에 대한 편견이나 특정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대 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에는 한 세대만을 특정하여 다루기보다는 각 세대의 입장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결과만을 보여주기보다 결과에 대한 분석도 함께 다룬다면 관련 현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p>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3. 03. 05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58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월 새 없이 이어져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일단 멈췄다면, 이는 물가 상승이 둔화하고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서 일단 그간의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소득과 관련하여 작년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3만 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되레 1.1% 줄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달 23일과 25일 방송인데요, 경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되었으나,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제기되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입니다.

지난 달 24일 뉴스리뷰에서는 향후 2년간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 수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되어, 경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고 전하며, 정 신임 본부장은 조직 융화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임 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됨에 따라 경찰 내부는 술렁이는 분위기였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며 자리를 잡은 검찰과 경찰 사이 견제와 균형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라고 전했습니다.

2001년부터 20년간 검찰에 재직한 정 본부장은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일선 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거쳐 '특수·수사통'으로도 평가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시절 정 본부장은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연수원 동기라고 전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에게도 없는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권한이 있는데요, 수사 방식 등을 놓고도 경찰 특유의 조직 문화와 융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떠나는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도 검사 출신 후임자 인선을 겨냥한 듯 에둘러 경찰 조직을 흔들리는 꼴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다만 검찰 내 '특수통'으로 알려진 정 본부장이 경찰 수사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부 기대도 있었습니다. 신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원래 지난 달 27일에 취임해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24일 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의 정 본부장이 경찰 수사 책임자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제기되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는데요, 정 본부장의 아들은 지난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중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전학 처분을 받았으며,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이후 최종 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가해자인 정 본부장의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 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후임자 인선에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청은 후임에 대해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다"며 "재공모와 내부 선발 모두 가능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위 보도에서 국수본부장 인사 참사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도 검증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실한 검증 시스템이 드러나면서 예고된 인사참사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가해자와 다르게 피해자는 그 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강제전학 등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가해자는 어떻게든 전학 등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판결선고시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 계속 소송을 늦추면서 대학진학 때까지 버티면, 대학에서는 학폭위 결정여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피해자가 억울해서 형사고소를 해도 어리기 때문에 불기소나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결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있어도 재판부는 나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가해자의 부모가 참석해 있기에 선도적이고 온정적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학교에 다녀야 하기에 더욱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제대로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정본부장의 경우에는 강제전학 조

치가 이뤄지긴 했지만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 제대로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보도에서 인사검증이 실패한 것을 짚고 나아가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짚고 갔다면 훨씬 더 좋은 보도가 됐을 것입니다.

지난 달 23일 저녁 8시 뉴스프라임에서는 고물가, 고금리의 충격이 국민생활을 옥죄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됐으며, 물가가 뛰는 바람에 가계 실질소득은 2분기째 줄었고 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부담과 고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 지출은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3만 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다고 하면서, 고용이 는 것과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근로소득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지만, 실질 소득은 되레 1.1% 줄었다고 했습니다. 소득 증가보다 물가 상승이 더 빠른 탓인데, 2분기 연속 감소이면서 역대 4분기만 보면 6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썸썸이 사정은 월 평균 362만5,000원을 지출해 1년 전보다 6.4% 더 쓴 것으로 돼 있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그 10분의 1에도 못미쳤다는데요, 실질 소비지출은 벌써 4분기째 증가율이 1%를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늘어난 지출은 물가 급등에 따른 것일 뿐, 실제 소비는 별로 안늘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전기·가스요금이 포함된 연료비 지출이 16.4% 급증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 폭으로 불어났다면서 고금리와 가계부채 탓에 이자 지출도 28.9% 급증해 역시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금액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이자비용이 많이 늘었고, 증가율로 보면 기타 신용대출에서 증가율이 컸다는데요,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 지원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으로 최하위 20% 가구 소득 증가율이 최상위 20%의 2배 이상이 되면서 소득 분배 지표는 다소 개선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고물가, 경기둔화 우려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위 보도에서 실질소득이 1.1퍼센트 줄었고, 늘어난 지출은 물가급등에 의한 것으로서 실제 소비가 별로 늘지 않았다고 하면서 통계치를 밝힌 부분은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정책의 초점을 고물가, 경기둔화 우려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둔다고 마무리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도에서 얘기한대로 전기·가스요금이 포함된 연료비 지출이 16.4% 급증한 부분에 현재 국민들은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 지원, 생활비 대출 등 56조원 규모의 약자복지 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분할 소득이 줄어든다면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락 국면에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달 23일 오후 8시 뉴스프라임에서는 계속 이어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멈췄다고 하면서, 물가 상승이 둔화하고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 일단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는데요, 지난해 4월부터 일곱 차례 연속 쉬지 않고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이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크니까 금리를 또 올리기 보다는 일단 그동안의 금리 인상 효과를 좀 지켜보자는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금리 동결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하다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본 다음에 갈지 말아야 할지를 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워진 경기 상황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줘 준 것 같으면서, 한은은 오늘 수정경제전망도 내놓았는데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1.7%에서 1.6%로 내려잡았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높아진 물가 수준과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의 흐름도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했을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 소비와 투자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상황이 여전히 불안한 만큼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리 인상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봐야한다고 합니다.

이 총재는 "이번 동결을 긴축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은 당분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일요와이드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한은은 인상이 끝난게 아니라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전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뒤 증권가에선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보고서가 잇달아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이제 관심은 금리의 정점이 어딘지, 나아가 언제 금리를 내릴지에 쏠려 있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이창용 총재의 언급은 의도적인 메시지일 뿐이란 겁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많이 올려봐야 3.75%로 한 번 정도 더 인상을 할 것 같고, 다음번 올릴 때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때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도 좀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비와 투자의 동반 위축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경기도 추가 금리 인상의 부담 요인입니다. 한은 역시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이 3% 초반으로 내려간단 전망이 들어맞는다면 추가 금리 인상 압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국고채 금리가 이틀째 일제히 하락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미국의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미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더 높이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조사팀장은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는데요, 금리가 더 안 오른다는 판단에 빛이나 투자를 갑자기 늘리는 데는 아직 신중해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금리인상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심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결국 불확실성에 따라 한은이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증권가에선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보고서가 잇달아 등장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증권가에는 타격이 계속되

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금리차이로 인해 국부유출이 발생한다면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점과 미국의 고물가 상황이 금리인상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미국의 물가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는 현상과 이에 따른 S&P 500 지수의 불안함 등은 아직 금리인상을 멈추기엔 시기상조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금들이 조금씩 이탈하고 있는 모습도 금리인상 중단을 뒷받침하기엔 쉽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금리인상 중단이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려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에 따라 정책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마무리 멘트로 넣었으며 더 좋았을 것입니다.

● **이동준 시청자평가원(23. 03. 12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8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3월 3일 출발 600에서는 폭행 의혹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황영웅이 MBN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황영웅씨는 지난 3일 SNS 계정에 글을 올려 "이제 '불타는 트롯맨' 경연을 끝마치려 한다"라며 직접 하차 소식을 알렸습니다. 황영웅씨는 자필 사과문에서 과거 폭행 의혹에 대해 "나로 인해 상처받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꼭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앵커는 지난달 중순부터 불거진 폭행 의혹에 프로그램 하차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강행해 해당 제작진 및 황영웅씨가 더욱 큰 비난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3월 6일 뉴스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 심층적 논의를 하였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에 따르면,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대학생에 대한 설문 결과 54.4%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고 13%는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도 3분의 1가량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언어폭력의 경우 피해를 장난으로 치부하면서 더욱 힘들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소송제기가 두려워 학교 자체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기록이 유예되거나 심의를 거쳐 삭제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청소년의 학창생활과 그 이후의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응해야할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무마된 경우에 피해자는 그 기억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해자의 사과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 또는 출결사항, 행동특성 등 항목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은 이 문제로 진학을 가야하거나 직업 선택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처벌을 회피하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최근 정치권의 사례와 같이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소송 절차 등이 이뤄지는 구조나 그 과정

등 법률적인 정보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주제를 심층 보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황영웅씨의 사건과 관련하여 제작진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의혹이 있는 부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제기되는 유명인이나 아이들에 대한 학교폭력 폭로 글들을 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고통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대처가 지연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대처는 폭행 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이 제기되는 경우 공인이라는 특성상 대중의 외면을 받기 쉬운 만큼 타 언론의 경우 황영웅의 지인 등 제보자의 의견을 받아 사실관계와 맥락을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한 아이돌 멤버의 학교폭력 사실을 기획사가 알면서도 무리하게 데뷔를 시켰다는 이유로 팬들이 상처를 입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돌의 특성상 자유롭게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사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 제한되는 만큼 기획사의 적절한 대처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익명이라는 형태로 게시되는 내용인 만큼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보도 윤리 역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도를 함에 있어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나 익명글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수만의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 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문화의 변화와 K-pop 산업적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3월 7일 뉴스투나잇에서는 K팝 아이돌 음반 판매는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을 전하며 팬들이 가수 사진이나 팬사인회 표를 얻으려 음반을 사지만 음반 대부분이 그대로 버려져 소비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음반이 나올 때마다 수십 장씩 사는 건 기본이고 음반에 포함된 멤버 사진과 같은 '굿즈'나 팬사인회 응모권을 위해 구매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에 따르면 K-pop 음반을 굿즈 수집을 위해 구매한다는 응답이 52.7%, 이벤트 응모가 목적인다는 응답이 25.4%에 달했습니다. 기자는 멤버가 총 13명인 유명 아이돌 음반을 직접 구매하며 어느 멤버의 사진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멤버가 나오는 음반을 사려면 수십 장을 사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혜운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장은 "굿즈를 별도 판매하는 방안들이 필요했고, 굿즈의 종류나 수량에 관한 정보만 있을 뿐 중요한 상품의 이미지 같은 정보는 제공이 되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 사랑이 과도한 소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획적인 소비를 당부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과거 음악시장은 음반시장이라고 불리며 음악을 소비하기 위해 음반을 구입하는 게 일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음원 중심 기술 변화 속 실물 앨범은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고 많은 레이블 사들이 도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돌의 등장과 함께 음악 중심에서 스타 중심의 시장구조로의 전환에 성공한 K-pop 산업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음악 시장이 구독제 스트리밍 서비스로 재편되었음에

도 앨범 중심 음악 제작과 실물 음반의 구매 소장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전략 덕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실물 음반 시장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음반이 오직 음악 감상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만큼 구매 목적 자체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굿즈를 소유하거나 좋아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이벤트 행사를 참여하기 위한 구매 자체는 새로운 구매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을 다채롭게 하여 음반이 소장품으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점도 K-pop산업의 양적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구매를 자극하는 노골적인 마케팅이나 품질에 맞지 않는 굿즈의 가격 책정 등을 통한 상업주의적 팬덤 커뮤니케이션이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가장 많은 종류의 포토카드가 있는 음반의 경우 한 장의 음반에 랜덤으로 6종이 들어가 총 78종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포토카드를 수집하려면 13장을 구매해야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필요 이상의 실물 앨범 구입을 독려하는 포토카드 상품 전략은 친환경 소비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돌 앨범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사례나 디지털 포토카드와 같은 시도가 있었던 만큼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전략을 구상할 때부터 K-pop 팬덤 소비 속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대안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SM 3.0과 같이 IP 다각화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한편 팬덤이 수동적 소비자로 플랫폼에 종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만큼 단순히 소비자가 앨범을 음악 감상 목적이 아닌 이유로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많은 상품이 버려지고 있다는 점만을 언급하기보다 실물 앨범 시장이 지금까지 K-pop 산업에 미친 긍정적인 평가 혹은 새로운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합니다.

3월 5일 일요일에는 초고도 비만의 남자가 생의 마지막에서 구원을 찾는 영화 '더 웨일' 개봉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거부한 채 온라인으로만 학생들을 만나는 주인공은 가족을 버린 죄책감에 폭식증을 얻었고, 거대한 육체의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다 생의 마지막에서 헤어친 딸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시간 넘는 특수분장을 받고도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브렌든 프레이저는 크리스티스초이스 등 할리우드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 유력 후보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미이라 시리즈로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었던 브렌든 프레이저는 과도한 영화 촬영 스케줄로 인해 부상을 입고 이혼을 하는 등 개인적인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슬럼프에 빠져 우울증을 앓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회장이었던 필립 버크의 성희롱으로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용기 내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왕년에 잘나갔으나 실패한 스타'의 대표적인 인물로 조롱의 밭이 되었던 그가 크리스티스초이스 남우주연상 수상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통받거나 어두운 바다에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당신도 두 발로 서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브렌든 프레이저의 소감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랜 공백기를 깨고 배우로 복귀한 프레이저의 이야기가 영화와 연결되면서 또 다른 극적 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영화의 소개에 만족하기보다 감상을 위한 배경지식이

나 맥락 등을 같이 전달한다면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3. 03. 19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59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정부가 근로시간 관련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은 어떤 내용인지, 또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6일 오후 9시 <뉴스 리뷰>입니다.

보도는, 정부가 확정된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해 자세히 전했습니다. 현재의 주 52시간제에 대한 유연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기존 12시간의 연장 근로 시간 기준이 '1주' 단위였다면, 개편 방안에서는 연장 근로 시간 관리 단위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주 64시간은, 초과할 경우 정부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 산재 과로 인정 기준입니다.

정부는 휴가 활성화로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연장근로를 저축해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마저 선택 사항으로 돌린 것은 사업주의 이익만 대변한 개편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으며, 한국노총은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노동 조장법'이라며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잘 전달했는데요. 특히 자료화면 등을 이용하여 기존안과 개편안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하여 준 점도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간의 제약으로 준비된 자료화면 대비 짧게 언급하고 지나간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부분이 아쉬웠는데요, 현재 주요 쟁점인 최장 근로 시간과 관련한 부분으로, 향후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더 구체적으로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동계의 반발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앞서 개편안 보도와는 달리, 노동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나, 혹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화면 등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대신 12일 오후 4시 <뉴스 1번지>에서 노동계 측 의견, 특히 MZ 노조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입장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MZ 세대는 권리 찾기는 권리 찾기에 적극적이라, 더 일하고 충분히 쉬는 걸 지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정부의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로고침 협의회는 "근로조건을 개선해 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직장에는 취업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50%에

육박합니다.

그 외 반박 의견으로, 업계 현실상 장기 휴가 가능성이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법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인 상황에서 52시간을 기준으로 한 계산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계측의 입장을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보도하여 전달력이 높았습니다.

다만, 해당 취재원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인식조사’ 결과는 청년 노동계측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자료였으나, 출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향후 통계 자료 첨부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기재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한편, 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표기할 때, 보도에 인용된 부분 외의 비율 역시 표기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프에서 ‘취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46.7%로 강조되었는데,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취업할 것’이라는 응답으로 그 비율은 53.3%로 더 높습니다. 보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외 비율을 표기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료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전달력이 높다는 점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간접인용하는 부분에서 ‘노동계측’, ‘IT 업계 관계자’ 등 취재원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조사 결과 출처 및 인터뷰 취재원 등을 명확히 하여 신뢰성을 높인 보도가 있는데요. 8일 오후 7시 <뉴스 프라임>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입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아이 하나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출산율이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여성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혼 여성 68.6%가 향후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혼 남성보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14.7%포인트 더 높습니다.

결혼 기피 이유로는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습니다. 기자는, 여성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본 보도에서는 다양한 인터뷰이가 본인의 의견을 직접 전하는 등, 직접 인용 방식으로 취재원을 명확히 하여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첨부된 조사 결과는 결과 출처와 대상 등이 명확히 기재되었고, 그래프 역시 전체 보기가 모두 제공되어 응답의 경향성을 확실히 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 대상 인원과 조사 방법 등이 함께 기재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독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7일 <뉴스위치>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민 1천여 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대

응답자 19.6%가 동영상 보는 것도 독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반면, 3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이 같은 비율이 각각 6~10%로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읽은 것을 독서로 생각한다는 비율도 10대의 경우 49%로 절반에 육박한 반면, 20~30대는 30% 초반대에 그쳤습니다.

본 조사는 서울시민 대상 독서 범주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수행했고, 주요 조사 내용은 보도된 내용 외에도 독서 생활, 매체와 정보 이용, 독서 생활화 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간략한 조사 개요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청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본 보도만 보면 10대 응답자들이 동영상을 보는 것을 '독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만 물어본 것처럼 보이나, 본 조사는 16개의 다양한 범주 가운데, 독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응답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조사 결과 가운데 주요 내용만 보도할 경우에는 실제로 조사가 진행된 질문과 보기 등을 자막이나 자료 화면 등으로 표기해준다면 시청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작년 사교육비가 26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7일 <뉴스워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78.3%로 늘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1년 사이 11.8% 증가했습니다. 모두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에게 들어간 사교육비가 가장 많았지만, 증가 폭은 초등학생이 가장 컸습니다. 교과별로는 예체능과 취미 교양의 증가율이 두드러졌고, 일반교과 중 국어와 영어의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이 같은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 교육 당국은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이 심해져 보충 학습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본 보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사교육비와 관련한 다양한 수치들을 함께 제공하여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총액과 세부 금액을 함께 전달하거나, 비율을 제시하는 그래프에서는 증가폭도 함께 제시하여, 해당 비율이 나타내는 바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수치들도 전년과 대비하여 전하거나 혹은 다른 수치와 비교하여 보도하여, 해당 수치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한편 연합뉴스TV는 사교육비 내용과 관련하여 본 보도 외에도 다양한 취재를 통해 다각도로 전했는데요. 학부모단체연합 대표와의 전화연결을 통해 체감 정도를 확인하고, 교육학과 교수와의 대담을 진행하여 향후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등 밀도 있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3. 03. 2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9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년 연장 및 노인 일자리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 TV는 지난 19

일 〈뉴스 10〉에서 노인의 취업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0년 동안 2배로 늘어나면서 지난달 60세 이상 고용률이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 가장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통계청의 집계를 인용하여 지난 2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 3,000명 늘어난 577만 2,000명이며 이는 2월 기준 가장 큰 규모로, 2013년 2월과 비교하면 2.1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지난달 고용률 또한 42.8%로 1년 전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최근 10년 동안 10%포인트가 급등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인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을 최근 1, 2년 동안의 변화가 아닌 10년 동안의 지표를 통해 설명하여 노인층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해당 비율을 그래프로 표기해주었다면 뉴스 내용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보도는 노인층의 고용률 상승에 대한 단순 사실 전달에 그쳤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고령화 및 노인층의 소득공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률 상승의 배경은 무엇이었는지와 함께 노인층의 소득공백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실제 노인층에서도 이러한 고용 증가를 체감하는지 등의 내용 등을 담았다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층의 일자리를 다룬 보도와 함께 청년층의 취업과 관련된 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20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청년들의 취업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자리 증가세 둔화와 경기 침체로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청년층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쉰다는 청년이 50만 명에 육박한다고 전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20대 이하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 5,000명 줄어들면서 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고 설명하였고 대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취업 상황의 어려움을 전달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취업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일찍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구직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도 짚었습니다. 지난 달 경제 활동에 대해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층이 1년 새 4만 5,000명 증가한 49만 7,000명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잠재적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어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을 언급하였고, 일자리 선택의 폭이 넓어져 원하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상황에 놓인 청년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업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계청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주어 현재의 상황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난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인터뷰가 덧붙여져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교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과 갓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보여주어 학년에 관계없이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층에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해주어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경기 둔화로 인한 고용 사정 악화와 임금이 낮고 일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주어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및 구직활동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필요한지를 덧붙여주었다면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직장생활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19일 <뉴스 13> 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30도 윗 세대도 함께 점심시간에 모여 식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심은 부서원과 같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모든 세대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점을 기준으로 5점 기준으로 MZ세대는 2.23점, 기성세대는 2.7점을 기록했는데 연령대가 가장 낮은 Z세대는 1.95점을 기록해 부서 단위 점심식사에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연구진은 "기성세대는 대부분, 점심을 부서원이나 팀원과 같이 먹는 것을 삼가는 경향이 보였다"며 "부서원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세대 간의 견해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빚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언론에서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 종종 다뤄지면서 사회적 문제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연구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했을 뿐 이에 대한 해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성세대의 응답에 대한 해석만 언급하여 기성세대에서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파악할 수 있었으나 2030세대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대별 인식을 다룬 조사에서 세대별로 어떠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지, 공통점은 무엇인지 등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각 세대에 대한 편견이나 특정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대 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에는 한 세대만을 특정하여 다루기보다는 각 세대의 입장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결과만을 보여주기보다 결과에 대한 분석도 함께 다룬다면 관련 현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p>	<p>일시/장면설명</p>
<p>2023년 3월 5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23년 3월 12일 04시/ 이동준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김홍태 시청자평가원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p>	 <p>이동준 시청자평가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p>
<p>일시/장면설명</p>	<p>일시/장면설명</p>
<p>2023년 3월 19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23년 3월 26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연구원</p>	 <p>안지연 시청자평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선학회</p>